



# 양계업계 뉴스 초점

총 보 텁

뉴스/초/점

## 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 공포

### 부화·종계업 등록에서 신고제로

농림부는 지난 7일부로 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하였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부화업과 종계업은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하였으나 동법 개정으로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된다. 부화업의 경우 종전 부화기의 대수 및 입란 능력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현행은 부화업의 종류만 기재하면 된다. 또한 종란혈통보증서나 병아리계통보증서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로 한정하여 완화시켰다.

등록대상이었던 산란계 5만수 이상, 육계 5만수 이상, 산란용 중병아리 3만수 이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기업의 참여제한 규모가 5만수 이상으로 신설되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 동법 제1,2종에서 제외된 질병 명시

농림부는 지난 3월 31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는데 양계질병의 경우 제1종가축전염병에서 추백리는 제2종으로, 가금콜레라는 제외되었고, 제2종가축전염병에서는 마이코프라즈마, 닭뇌척수염, 전염성후두기관염, 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닭전염성F낭병과 종전부터 존속되어 오던 가금티푸스 등 총 8개 질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에 준하는 기타 질병으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추백리와 함께 제2종가축전염병은 총 9개 항목으로 관리가 된다. 추백리의 경우 제1종에서 2종으로 분류가 된 것은 질병의 청정화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OIE규정에 준하는 질병

을 명시하였기 때문인데 진단액의 확대 보급으로 퇴치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보여진다. 추백리 방역관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육계경기 변화 심해

#### 농가 입추에 애로

우리나라 최대 명절로 꼽히는 추석이 이번에는 양계인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게 하고 있어 저마다 그리 반가운 마음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 계란은 강세를 보였고, 육계는 약세, 병아리도 그다지 시황이 좋은 편이 아니었으나 금년에는 병아리를 제외한 계란과 육계시세가 저조하여 출하를 앞둔 농가들의 시름이 커졌다. 유통은 변화가 커서 가격 변화에 적응이 빠른데 반해 생산농가들은 입추당시의 상황만 고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냉장계란 유통증가

#### 수요기 난가하락 유발

계란소비에 활기를 띠는 추석을 앞에 두고 상승세를 탔던 계란가격이 난가 하락시 체화된 계란의 상당량이 냉장비축되어 방출됨에 따라 난가가 전국적으로 약세를 보여 농장 출하기준 특란의 경우 9월초에 비해 약 18%씩 하락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태국으로부터 식란이 수입되어 냉장계란과 합쳐지는 결과가 빚어져 난가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란값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따라서 계란 수입도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생산계획을 세우는 사전 대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난가에 상관없이 수입이 되고 있는 점

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 우수양계인상 후보자 선발

#### 축산박람회 개최시 시상예정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수축산인 및 기자재업체 선발 시상과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우수양계인상 후보자 선발을 위해 선발기준에 의거 후보자 추천을 본회 지부 및 분회 그리고 본회 회원 중 양계축협에 의뢰하였다. 우선 자격 기준은 본회 회원 중 10년 이상 양계업을 한 자로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경우에는 부모의 경력을 포함하게 된다. 대상에는 농림부장관 상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 우수상에는 소속협회장상과 70만원 상당의 부상, 장려상에는 추진위원회장상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지게 된다.

### 식란 유통기준 마련될 듯

#### 농림부 주관으로 준비 중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식란에 대한 유통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축산물 중 유일하게 식품공전에서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던 식란에 대한 유통 기준이 농림부에 의해 세워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도 계란 유통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회내에 구성되어 있는 질병방역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농림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유통기준이 마련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가의 의식전환의 요구 되어지고 있다. 양계